朝鮮日報 朝刊 本紙朝夕刊十二面

社說

正租上場保留
共販을强化하라

一

米穀專賣案인 米穀清算取引所의 正租上場은 六日 總督府로부터 保留中止케된旨를 言明하엿다 그 理由는 內地에서 米穀配給機構改革案이 具體化되어 來議會에提案될形勢이고 이를따라서 全國의 米穀清算取引所는 廢止케될것이며 朝鮮도 米穀配給機構가 어떠한 形式으로든지 改變되고 清算取引所는 全滅될 運命에잇슴으로 取引所自體의 存廢問題가 잇는今日에잇서 正租上場을 云爲함은 不當하다는데 잇다. 取引所가 本來의 使命下에 公定價格을 내어 需給調整에 貢獻이 잇섯슴을 吾人은 否定하는 者아니나 反面에 經濟智識이薄弱한 朝鮮人에게 投機心을 刺戟하야 『米豆로 亡햇다』는 常套語까지 생기게한 罪惡도이저서는 안된다 이러한 功罪相半한 取引所가 언제 廢止될지 그 時日을 지금에 잇서 豫測할수 업는 일이나 戰時下 經濟機構가 全面的으로 變革된 今日 自由主義의 遺物인 商品取引所의機能喪失은 當然한 일이오 特히 米穀清算取引所와 가튼것의 存續을 許치안케 되는 此際에잇서 朝鮮獨自의 事情에서 正租上場을 固執할수 업슴은 不得已한 일이다.

二

正租를 清算市場에 上場하야 公正市價를 내이고 生産者로하야금 不當한 中間搾取를 當치 안케함은 理想的이라겟는데 이것이 前述事情에 依하야 그實現이 업게되엇스니 그러면 그에代할 方策이 잇서야 할것이다. 最近 傳하는바에 依하면 正租共販을 團體로 農會와 金組의 對立이 不無하야 生産者方面은 農會를 支持하고 需要者側인 精米業者는 金融關係로金組를 全幅的으로 依存코잇서 論議되어잇다한다. 元來 朝鮮의農村三團體 即 農會, 金組, 産組의 相衝關係은 各方面으로 露呈되어 當局에서도 그調整에 着手코는 잇스나 特히 農會와金組는 各其 伯仲之勢로 地盤을 가지고 本來使命以外에까지 成長發達코잇는만큼 自己의勢力縮少를 斷然不肯하고 그것이 언제나 正常化케 될지 아득한터이다。正租共販에잇서서도 그分野를 明確히 定키는 實際的으로 대단히 困難한 모양이어서 가는地方에서 自己의 成績擧揚에 熱心인남어지 對立抗爭하는일이 잇다면 그는 生産者에게는 共販의 本精神에 버서나는 結果를招來한 憂慮가 업지도안흘것이다. 共販이란 正租거나 繭棉叺等 何者를 勿論하고 共販그自體의 本來의 使命에 反하야 往往 生産者側의不平과 非難을 밧는事가잇슴은 자못遺憾되는일이거니와 이는指導的地位에잇는 斡旋機關의當務者가 實際事務執行에잇서 無智한農民을 爲하는 赤誠의不足과 그릇된 認識에서 온것이 아닌가. 生産品은生産者손으로 販賣하는것이根本原理인것으로 農會, 金組는 過渡期的으로 共販을 斡旋하는데 지나지못하는것이니 農民의自覺民度向上에 伴하야 生産者의 團體인 相互組織의 組合에依하야 共販케될것을 目標로 改善努力한實務를 저야할것이다.

三

內地의米穀配給機構改革이實現됨을따어 朝鮮도當然히現行機構의 一大變革을 招來케될것인데 지금에잇서서 付度키어려운일이나 米穀會社로나타날지 正米市場擴張으로나타날지 何如間에 戰時米穀政策의 一環으로 具體化할것인바 그 改革에 當하야서는 參出商、農村三團體等의 利害關係에 치우치지 안흘것이오 全人口의 八割이 農民이오 農民의 八割이 小農인 事情에 主眼을 두어 여기서 만흔 벼(租)를正當한값으로 安心하고 팔수잇도록 하는데 政策의 中心을두기 바라며 이리케하여야만 戰時食糧供給의 重責을진 朝鮮農民이 食糧增産에 邁進努力케될것이다。當局과 밋 關係者의 一考를 促하는所以는 實로 여기잇다.

黃恩寺山占領으로 隘口街陷落切迫
大坪、蓄山山嶺도確保

【○○山頂八日發同盟】猛攻十四日血과 肉彈으로써 드디어 頑敵을 擊破한 硝爪船攻略部隊는 激戰後의 疲勞함에도 不拘하고 進擊을 繼續하야 午後零時十五分에는 隘口街의 北方據點黃恩寺山(標高四五○米)을 占領、硝爪船의 뒤를 이어 日章旗를 揭揚하고 다시 唐家山의 三分之二를 奪取하엿다 이리하야 隘口街의 鐵壁이되여잇던 地方의 陣地는 모두 我手中에 歸하고 南方望嶺의 占領에따라 背腹으로 脅威를 느끼어 隘口街는 全然 軍事的價値를 喪失하야 部落以西의 本道上에 蝟集한 敵大部隊는 벌써 南方으로 退却을 開始하엿다

【○○山頂에서八日發同盟】龜井、大島、各部隊는 八日正午嶺東南峰의 大坪、蓄山의 山嶺을 確保하고 다시 그西方象山獅子嶺의 敵陣地와 互相對峙中이다

烏石嶺山麓엔屍如丘山의慘狀

【○○山頂에서八日發同盟】八日午前 突然峯嶺의 ○○附近에 砲列을펴 我砲兵部隊는 隘口街西北側의 烏石嶺의 敵後方據點에 對하야 終日猛砲火를 퍼부엇다 側背로부터 攻擊을 當한 敵은 俄然失色하야 烏石嶺山麓及 隘口街西方街道上은 屍體가 차혀 山을 이루어 慘慘한 情景을 呈하고잇다

反復하야八日午前零時四十分 드디어金山을 占領하고 달비치밝게비친山頂에 殊勳의日章旗를 揭揚하엿다

信陽까지二十餘里
我軍三方으로猛進擊

【○○八日發同盟】先方部隊에依하야 六日夜 京漢線遮斷의 偉業을 完成한 ○○部隊는○○、○○諸部隊와 함께 繼續하야大別山最西端의 峻嶮을 突破 怒濤와가티 京漢線東側線上을 進擊하야 南進의 態勢를 示하고 漢口方面으로부터 信陽을 掩護하기위하야 列車로서 增援해오는 敵大軍을 激擊하고 잇던바 俄然銳鋒을 轉하야 北으로 向하야 信陽南側을 威脅하고 信陽에서 南進해오는 敵을 모주리 擊破하고 八日夜에는 東西雙河東西의 線에 進出하야 信陽을 距하기 僅僅二十里半에迫頭 이제 信陽의 最後의 死命을 制壓하려고 急速進擊을 續行하고잇다 이리하야 信陽의敵은 東南西側으로부터 包圍되어 混亂을 極하고 그陷落은 目睫에 迫頭하엿다

作業命令을 밧고 進發하려는 我○○部隊(長江戰線)

人形山도占領

【頭戰坪八日發同盟】大別山戰右翼○○部隊는 新店前面의 峻峰을連한 敵抵抗線의 主陣地로서 가장頑强한 人形山의 敵陣에對하야 七日夜皎皎한月光을利用 前後三回에걸처 壯快한肉彈突擊을

中支方面戰果總計
敵死體六萬八千餘
八月廿日부터十月三日까지

【東京電話同盟】大本營陸軍報道部發表(八日) 中支方面에잇서서의 八月二十日부터 十月三日에이르기까지의 綜合戰果는如左하다

▲(判明된것)

가、敵遺棄死體 六八、七三七▲捕虜 一、○一七

나、鹵獲品 ▲小銃 一一、六七六 ▲輕機 一九二一▲重機 二○四 ▲各種砲彈 三、四○○▲手榴彈 三、五○○ 其他多數 我損害 一、七五○

退路遮斷으로 鄭州方面敵大混亂

【○○八日發同盟】七日午前十一時半 我陸의荒鷲 井關、栗原兩部隊는 風雨가激烈한 惡天候를 무릅쓰고 鄭州以南 京漢線南部線路에沿하야 郾城方面의 敗敵과밋 鐵道數個所를爆擊하고 同線을爆破하야 多大한 損害를준後 全機無事히 ○○基地에歸還하엿다 여대문에 鄭州方面으로부터 敗走한敵은 南下가不能하야 全然 混亂狀態에陷하엿다

【○○八日發同盟】我○○部隊는 連日 黃河對岸灘關에向하야 砲擊을行하야 大打擊을 與하고잇다 六日에는 灘關에서 西安에通하는 隴門隧道를破壞하야 進行中의列車가 續續顚覆되는것이보엿다 京漢線柳林驛의 爆破와함께 信陽、鄭州及 鄭州灘關間의敵은 退路가 斷切되여 그殲滅은 刻刻으로 切迫하고잇다

新店陷落도在邇

【頭戰坪八日發同盟】重疊한連山峻路를迂回하야 七日午後 突然新店東側 松林高地의 敵陣前面에進出하야 敵의肝膽을서늘케한 我○○部隊의 中澤、大田、長谷川、佐藤、寶田의各部隊는 松林高地의 攻擊을後續部隊에맷기고 同夜敵陣의 左側背를 迂回하야 八日未明 敵의堅壘를衝하고 一擧新店南側의 高地에肉薄하야 이를奪取 新店一帶의 殘敵退路를遮斷하는同時에 朝來新店街에 巨彈을퍼붓고잇서 敵北部大別山의 重要據點新店의 陷落은文字대로 目睫間에 切迫되엿다

謝莊을空爆

【北京八日發同盟】原田部隊의○○機는 七日勇躍出動 午後一時三十分 謝莊(鄭州南方十키로)의 南方을 空爆 京漢線을遮斷 全機無事歸還하엿다

信陽五里店間의 敵司令部를猛爆

【○○基地七日發同盟】陸의荒鷲佐洲、久保兩部隊는 地上部隊의 攻擊에 呼應하야 六日終日 京漢線의 要衝五里店、信陽間敵司令部及 密集部隊에 猛爆을 加하고 中間部隊도 大別山系의敵陣地 麻城을 急襲大打擊을주엇다

【北京七日發同盟】陸의荒鷲原田部隊○○機는 五日午前十時 猛雲을衝하야 鄭州驛及 京漢線各驛에 猛爆、全機無事歸還하엿다

블元帥處刑에
와라시로프氏極力反對

【哈爾濱八日發同盟】張鼓峰事件의 責任을지고 極東司令官의榮職을 罷免當하야 莫斯科에 召還되엇던 블렛헬元帥의 其後의 動靜은 世界의 注視를 集中하더니 當地某處에 達한 情報에 依하면 블렛헬元帥는 自殺하엿다고 傳하고잇섯는데 블렛헬元帥의 身邊處分에 關하야는 政府內에硬軟兩派가 對立하야 國防人民委員와라시로프元帥等은 極力블렛헬元帥를 支持하야 블렛헬元帥를 處刑하면 國防人民委員을 辭職하겟다는 强硬態度를 示하고 잇다한다

英伊兩國政府 西班牙問題討議

【巴里七日發同盟】羅馬로부터의 報道에依하면 英伊協定成立으로 過般來羅馬에서 차노카相과 駐伊英大使 파스驛과의間에 英伊協定發効問題其他諸案件에 關하야 緊密交涉을 進行中이던 最近에이르러 伊政府는 英國이 에디오피아帝國承認及 人民戰線側義勇兵撤退를 條件으로 西班牙國民軍에對한 伊太利義勇軍의撤退를 承諾하엿다고 傳한다

西南開發에專力
國府、經濟調整委員會設置

【香港八日發同盟】漢口來電에依하면 國府는일즉 西南各省의 經濟開發을 促進키위하야 西南經濟開發委員會를 設立하고 孔祥熙를 委員長으로 또 各省政府首腦를 委員으로하고 着着事業을 遂行中이던바 國府는 이委員會의 權能을擴大하야 同樣의 目的을가진 西南經濟調整委員會를 設立하기로되여 七日 此의 成立을 보앗다 同委員會의首席에는 蔣介石自身이就任하고 孔祥熙及張群은副首席으로任命되엿다 國府가西南開發委員會를 또擴張調整委員會를 設立한것은西南各省內經濟開發에잇서서諸外國으로 하여금 投資시키는데 形便이조토록하고 在外華僑의 送金을增大시킬 魂膽으로보이는데 今後의推移는 極히注目된다

佛印當局의 對支援助露骨化

【하노이八日發同盟】佛印當局은曩者 日本向에限하야 鐵鑛及 망강鑛의 輸出禁止令을 發하엿는데 最近에이르러 更히左와如한 事實이 判明되엇다 即 九月二十三日夜滇越鐵道의 佛印度支那境界驛 老開通過의 臨時列車三輛은 돈라驛에서(廣西省佛印境界)하노이 經由雲南에 向하는 制服입은 廣西軍飛行將校及 兵卒合 約二百名을 輸送하엇다 右는 夜間만利用하야 極秘裡에 行한것이다 右의 事實에對하야 하노이駐在宗村總領事는 近間 佛印總督代理 아이라스總務長官과 會見 右의 眞否를 質問한바 同長官은 이를 否定하지안헛다고 確聞한다 佛印側의 蔣政權援助는 이으고 露骨化한 模樣이다

日支事變波及에對備
香港政廳非常時取締令公布

【香港八日發同盟】香港政廳은八日官報로써 非常時取締條令을公布하엿다 同條令은 香港總督이非常時或은公衆에危險이 잇다고 認定하는 境遇에 適用하려는것으로 一九二二年 香港에서 海員大罷業時에 公布된것인데 이에若干의 修正을加하야 日支事變紛爭의 南支波及에 備한것으로 解釋된다

一、總督이安寧을 紊亂시키고或은民衆을煽動한다고 認定하는 一切의集會及行列行進에 對하야 그解散을 命하고 或은그 時期場所를 指定함

二、總督은 秩序維持上特히必要한때에는 必要한團體解散을命함을得함

三、何人이라도總督의許可업시는 支那語로쓴新聞紙小冊子其他 印刷物을 印刷又는 發行頒布함을不得함 又總督이必要타고 認定할境遇에는그權能으로써모든 新聞紙의 印刷發行을 停止시킬을得함 必要에應하여는 警察總監으로하여금 印刷機用紙其他器具를 沒收함을得함

以上諸條令에 다음新條令을追加

日支兩軍間에 戰鬪行爲繼續中은 香港務局長又는 그權能을職與된者의許可를 엇지안코는 何人이라도

一、香港港內에서 日支兩國의軍用에 使用되는 船舶內에서軍需品이고 아니고를 不問하고 燃料食料其他必要品을 賣却供給 又는配達함을不得함

二、船舶을修繕하고 又는修繕할 目的으로써 入渠함을不得함 但 同船舶을所有한 會社社員은 此限에不在함

西康省近近實現

【香港八日發同盟】四川省의一部를 西康에 加하야 西康省을 新設하려는 計畫은 最近商議가 모다 西康建省委員 葉秀峰은七日成都에서 重慶에 到着 同地에서 國府當局과 最後的折衝을 遂하엿다 四川省西南部의 廣大한 地域을 西康側에 讓渡하는件에 對하야는 國府側에도此를 承認하엿스므로西康建省도 近近實現을 確實이라한다

海軍遡江部隊 蘄春을遂占領

【上海八日發同盟至急報】艦隊報道部午後一時發表=陸海軍遡江部隊는八日午前十時 蘄春을 占領하엿다

【上海八日發同盟至急報】艦隊報道部八日午正發表=漢口를 目標로江上進擊中의 海軍遡江部隊는 田家鎭要塞突破後 蘄進又蘄進 昨七日夕刻이미 蘄春을 指呼之間에 望見하게되엿다

【南京八日發同盟】中支軍八日午後二時發表 我軍은 十月八日午前 田家鎭北方四里 揚子江北岸要點 蘄春을 攻略하엿다

陽新通山道를遮斷

【南京八日發同盟】中支軍八日午後五時發表=我軍은 昨十月七日夜 敵의退路를遮斷하야 突然 排市附近 富水를渡河하고 蒸天戰果를擴大하야 八日 陽新通山道를 完全히 遮斷하엿다

太子磯附近서 敵二千을殲滅

【南京八日發同盟】中支軍八日午正發表=蕪湖上流揚子江岸에 蠢動을 繼續하든 敵은 逐次掃蕩되는中으로 安慶東方의 我軍은 八日太子磯附近에서 約二千의敵을 殲滅하엿다

東鄕駐獨大使에 歸朝命令을發付

【東京電話同盟】新駐獨大使 大島中將의 辭令은 八日에 正式으로 發令되엇는데 駐蘇大使에 內定된 東鄕現駐獨大使는 一旦歸朝시키기로 外務首腦部와 協議를 하기爲하야 八日 外務省으로부터 歸朝命令을 發하엿다

澤田廉三氏 十二日歸朝

【東京電話同盟】外務次官으로內定된 北京大使館附參事官 澤田廉三氏는 十二日飛行機로 歸朝할旨八日外務省에 入電이잇섯다

로멜波蘭大使 堀內次官과要談

【東京電話同盟】로멜駐日波蘭大使는 八日午前十一時半 外務省에 堀內次官을 訪問하고 최근 歐洲問題를 圍繞하는 最近의歐洲情勢에 關하야 各種情報를 交換하고 要談約一時間後 辭去하엿다

粵漢線貨車에 一般貨物積載禁止令

【香港八日發同盟】粵漢線警備司令宋濂日은 七日粵漢線 上下各線의貨車에 一般貨物의 積載禁止를布告하엿다 右는武漢地方에 對한軍需品輸送이 最近甚히遲滯되고잇는 實情에 鑑하야 軍需品輸送을 急히하려는것이다

蘇聯機國境에飛來

【慶興電話同盟】八日午後三時半頃 蘇聯飛行機三機가 慶秋方面으로부터 飛來하야 豆滿江水流域上空을 旋回하야 偵察한後 五家子方面으로 자최를 감추엇다

辭令

十月七日發令(朝鮮總督府)

任總督府理事官(六等) 總督府鐵道局書記 佐藤 良治

命總督官房會計課勤務

兼任總督府技師(五等) 總督府鐵道局技師 上升 主計

命內務局勤務

任總督府鐵道局技師(三等) 總督府技師 山岡 敬介

任總督府中央試驗所技師(三等) 藤村彥四郞

任總督府遞信副事務官(七等) 總督府遞信書記 松尾 包一

任總督府鐵道局副參事(七等) 總督府鐵道局書記 藤田 行俊

(咸興署長) 總督府司稅官 姉川 行隆

陞叙高等官(六等) 總督府稅關事務官補 平澤 忠治

任總督府稅關監視 八代屋松三郞

任總督府稅關鑑定官(七等)(各通)

命新義州稅關在勤

任總督府道理事官(八等) 總督府黃海道部屬 韓 璹 敎

命黃海道在勤

總督府慶尙南道警部 南部八右衛門

任總督府警視(八等)

命慶尙南道在勤

朝鮮公立中學校敎諭 山川虎之助

同 平田 實

同 小日向秀雄

任朝鮮公立中學校敎諭

補新義州東公立中學校敎諭(小川)五等

補新義州公立中學校敎諭(平田)七等

補宣福公立中學校敎諭(小日向)七等

任朝鮮公立實業學校敎諭(五等) 兒玉兵一郞

補新義州公立商業學校敎諭

朝鮮公立高等女學校敎諭 綿林 光雄

任朝鮮公立高等女學校敎諭(五等)

補興南公立高等女學校敎諭(五等)

朝鮮公立中學校敎諭 吉本 豊

任朝鮮公立中學校敎諭(七等)

補釜山公立中學校敎諭

總督府保護觀察所保護司職務囑託 吳 銳 善 張 友 植 小林 源六 田川常次郞 李 康 爀 韓 萬 熙 西島 寅吉 近藤 範治 白石 宗成 夏目十郞兵衛 金 琪 宅 池 貫 一 福富 房登 中込 精一 上田 義雄 睦 順 九 宋 和 植 姜 宅 善

奏任官으로待遇(各通) 朝鮮土木技師 末原 盛彥

依願免本職

朝夕生涼!

只今부터服用하시요

天下名藥

百補丸

三伏더위에 시달린몸을 하루밧비 補하시오

느지면 大病될 念慮가잇슴니다

肺病、不足症、早老症、慢性胃腸病、廢陽等의不治의大病도 조고마한 虛弱으로 부러 始作됩니다

虛弱이過度하면百藥이無效

체증을 根本的으로 곳치십시다

陽氣不足을 根本的으로곳칩시다

百補丸의特長

一、大補脾胃하야 체증根絕!

二、大補元氣하야 陽氣永續!

三、氣血不足、神經衰弱、肺病、해소等이 原因的으로 一掃됩니다

生男生女 天下待望의 世界的 婦人靈藥

부인자궁병,냉병,경도불조,대하증에 婦人百補丸

藥價 百補丸 一劑 十圓 婦人百補丸 一劑 七圓 無料進呈

京城府堅志町五ノ一

平和堂株式會社藥品部

電光六三二番、三三○番、振替五番

防火第一主義標幟下 家庭防火組合結成

町會合併을機會로京城府組織에着手 都市防空陣一層鞏固

비행기와 항공술이 비상히 발달됨을따라 공습(空襲)으로 시작되여 공습으로 끗낸다고하는 근대전의 참담한파해를 될수잇는대로 적게하는데는 군의활동과아울러 국민을들어 방공에힘쓰는 국민방공(國民防空)이 절대로 필요한바인데 목조건축이 대부분을 점령하는 조선에잇서서는 국민방공의중심은 방화제일주의(防火第一主義)에잇다

조선의수도 경성부당국에서는 일찌기 이러한견지에서 가정방화조합(家庭防火組合)을 결성식힐 안을가지고 신중연구중이던바 지난팔월일일부터시행된 정회합병을기회로 그조직에착수하야 이래맹렬한 활동을한결과 두달남짓한 동안에 벌써 오천에달하는 가정방화조합의조직에 성공하엿고 정단위로결성되는 가정방화조합련합회(家庭防火組合聯合會)도합병된 새정회의 반수약이십개가 결성되여 대단히조흔 성적으로 진행되고잇다

가정방화조합은 오호를표준으로 한조합을만들어 상부상조(相扶相助)의정신아래 조합에소속된 각호방화에당하며 방호단과협력하야 방호의활동을하는것임으로 부내호수를 십사만호로잡드래도 최소한도 일만사천조합이 필요하게되는것임으로 부당국에서는 금년안으로 전부의조직을 끗낼목표로 매진중이다

이것이완성되여 상당한효력을 발휘하는날에는 경성의 도시방공진은 일층강화될것으로 기대되는데 현재로도 대화정(大和町)이 삼정목, 본정(本町)사정목, 삼판통(三坂通) 앵정정(櫻井町)이정목, 청엽정(靑葉町)일정목등에는 훌륭한 훈련을한 방화조합이 결성되여잇다 이와반대로 조선인부락인 북부일대가 조합결성이 지지부진하는것은 심히 유감되는일이라고한다

國民防空의第一步

組合用、會社用의 簡易防護室構築 府에서補助指導勸奬

경성부에서는 방화조합의결성과 아울러 국민방공의 완벽을기하고저 명년도부터 가정방화조합을단위로 간이방호실(簡易防護室)을설치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하기로되엿다

부방공계(防空係)에서는 지금 소방서자리 국방전람회(國防展覽會)장안에 경비오백원가량의 남경식간이방호실(南京式簡易防護室)을만드러 견본으로 일반에게 보이고잇스며 또광화문통네거리 공지에 일천칠백원의 공비를던저 좀더 완전한 내무성식방호실(內務省式防護室)을 만들고잇는데 이것은 직경일메-타팔십센치의 흄-관세개를 지하에무더 그안에 사람이 피난하는 설비를한것으로 방화(防火)방독(防毒)으로는 백오십키로정도의 폭탄에는 파괴되지안는 튼튼한것이다 간이방호실은 가정방화조합용 내무성식은 관청 은행 회사등 큰세대용으로 권장하랴는것이다

그러므로 간이방호실은 시내에 결성되는 방화조합 한개소에 하나씩 일만사천개를만드는 것이 이상이나 이것은 용지경비등으로 급속한 실현이 곤난하므로 위선 방화조합이 둘내지 세군데가합하야 하나씩 만들도록 명년도부터 지도장려하기로 되엿는데 하기휴가에 실시하는 학생근로보국대의 힘을 빌려 공사를하면 부지불식간에 학생에게 방공사상을 주입식키며 공사비도 대단치안케될것으로 부국대의활동을 기대하고잇스며 부로서도 소요경비의일부를 보조할터이다 따러서 소요경비는 명년도예산에 요구하기로 되엿는데 첫해목표는 약일천개이다

(사진은 광화문통의 방호실구축광경)

東京朝鮮人學生 數十名檢擧取調 內容은思想關係인듯

【東京支局發電】동경경시청내선과(東京警視廳內鮮課)에서는 지난칠일 극비밀히 일본대학(日大)법학부이년생 이모(李某)외에동경시내각사립대학에재학중인조선인 학생수십명을 검거하야 서신전(西神田) 조도전(早稻田)호총(戶塚)등 각경찰서에나누어인치하고 경시청내선과 길전(吉田) 촌산(村山) 삽곡(澁谷)등여러경부보가 담당하야 방금엄중취조중인데사건의내용은극비밀에부치므로 확실히알수는 업스나 사상관계사건인듯하다고한다

國境警備에 傳書鳩網擴充

체신국에서는 색기 전서구(傳書鳩)일흔마리가 그동안 기초공사를 마치 제법 큰비들기에 비기리만치 영리해젓스므로 이번 평북경찰부로 시집을가서 국경제일선에서 국경경비의 중책한일역을 하기로되엿는데 그들을키운 체신국관계자는 추운지대인만큼 무사히 사명을다할가 걱정이 자심하다고한다

銃後後援의實力이야말로 皇軍戰勝의重大한一因

銃後後援强化週間에 朝鮮憲兵隊司令官 談

총후강화주간실시중에 이궁(二宮) 조선 헌병사령관은 팔일기자단에게 다음과 가티 총정용사의 유가족에게 자중자성을 촉고하고 일반민중에게 일층총후의 수비를 견고히 하라는의미로 간곡한 담화를 발표하엿다

이번에황송하옵시게도 칙어를 내리시옵시어 총후국민의 향할바를 지시하옵시고 또 군사구원의 어진념으로 어내탕금을하사하옵신것은 반도국민이 모두 황송히 생각 하는바로서 황은의 넓으심에 대하야 감격하야 마지안는바이며 정렴을 다하야 노력으로써 만일에 봉답하지아니하면 아니된다

총후후원강화주간을 정하야 전국민이 다 지난일일부터 출정장사와 유가족에 감사위자의 정성을드린것은 총후국민의 가장 시기에 적당한 주간행사인 동시에 참으로 깃거운일이다 더욱이 조선반도의 총후열성은당국의 지시한바에 향하야 관민일치 내선일체의 실적을 발휘하고 강화주간에 각방면에 긍하야 행사를 수행함으로써 총후후원을 튼튼히하고잇는것은 진실로 경하할만한일이다

생각컨데 이번사변의 발발이래 반도국민의 진국자세로써 우리들은 황국신민이다하는 정성을 발로지켯슴은 실로 놀라운 일이다 국민정신총동원에 대하야 총후군사후원 내지구원 연맹사업에 대하야 반도각종단체는 물론 이천만신민이 모두제일선 장병을 위문격려하야 총후에는 한등의염려가 업도록 노력하고잇는것은 눈물겨시는 듯 기어려운것뿐이다 또한 매일영업을 하고잇는 의사, 산파, 이발, 료옥조합기타 각종영업까지가 자발적으로 출정군인의집 또는 유가족에 대하야는 무료 혹은 반액 우대등의 방법으로써 총후지원을 하고잇는것도 반도신민의 적성을 피력한실례로 이와가튼것은 헤아릴수업시만타 이정성스러운 총후후원의 실천이야말로 실로 현현한 황군전승의 중대한 원인의 하나라고 할만하며 출정장사의 유가족여러분이 얼마나 감사하엿으리고 감격하고 잇나치는 바이다

그러나 과거수차의 전적에서 쓸데업는 바로 참으로 생각에지 출정자 유가족가운데는 가끔 이의 총후사례에 비추어 볼때에 군민의적성에 감사하는바 업고 도리어 이것으로써 당연한 권리와가티 생각하야 유가족으로서 중중자성의 감사심을 이저버리고 주위사람들로부터 그몰근신을 손까락질 밧는사람도 잇섯다 현재 이번사변에 당해서도 이런소문이 업지안타 극히 드문일이나 그일례를 드러보면 총후 지원의 적성을 피력하야 주는 사람 들에게 대해서 후은 그 응대가 불손하며 개중에는 또 입원중의 주의가 노벼서 출정사도서의 명예를 손상할과 가튼 비판을 밧는사람이 잇기도하며 혹은 엄격히 집을지키고 뒤를돌봄 근심이 업게하지 안흐면 안될 책임자가 도리어 자성(自省)을 하지안하야 사회일반으로부터 업수히 여기며 이마살을 찌프리게하는 언동이잇서서 이때문에 출정자의 명예를 손상시킴과가튼 사례를 듯게됨이 잇는것은 이강화주간에 당하야 특히 주의하지안흐면 안될일이라고 생각한다

강화주간은 방금 그반을 지나서 여러가지 행사는 점점 진척하야 총후후원사업의 완벽을 더욱 이루어가는때에 나는 총후국민의 끈힘업는 지원과 유가족의 일층 자중자계를 요망하야 마지 안는다

이제 한구한폭을 아페두고 국민은 장기전에 대처할 각오를새로 굿게하지 안흐면 안된다 전승의 한가지 원인이되는것은확으로 총후국민의 지원이다 내선일체한 길로 황국신민으로서의 맹서의헌현에 분기하고잇는 반도신민은 이강화주간을 조흔기회로하야다시호국의 용사및 유가족에 대하야 물적구제는 물론 나아가서 정신적 감사격려의 적성을 드리는 동시에 또유가족측에서도 전기한바와 가튼 사례를 남의 일로만 생각하지말고 자중자성하야 국민의 적성에 감는감사로써 답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시에 또가끔 전기와 가튼그릇된 유가족의 언동이 잇는때에는 이웃사람이서로 경계하야그 그릇된것을 자진하야 고처서명예잇는 출정자로하여금 오명을 남기지안케하고 유가족인 자랑을 이이상더 발휘하야일층총후의수호를 굿게하야 장기전에 견디감을 극복하야 거국일치로 시여써 유종의미를 발휘하여주기를 바란다 즉 이강화주간의 기회에 엇재건 남들이 말하지들 꺼리는것도 감히 드러서 특히 희망하는바이다

現在의木炭市勢는 暴騰인가、아닌가

公定價格決定을愼重히研究

목탄가격에 대하야는 물가전문위원회 소위원회(物價專門委員會小委員會)에서 연구를시작하엿는데 공정가격의 설정이 타당한지 타당치안흔지 대단히의문으로 역이고잇다 목탄가격은 사변전에는 일원삼, 사십전(오관드리한섬) 하든것이 현재일원 팔구십전이나 되여잇스나 공정가격에의하야 억제를할필요가 잇슬정도의 폭등이지가 의문이고 또한 공정가격여하로는 생산의감소를 내일지도 업지안라는 의견이잇다

또한편수요기를 당하야 상당한등귀를 보일것이고 더욱이벗차게밧는이익은 반드시 생산자가취한다고도 할수업는실정에잇스므로 소비자의입장을 고려하야 가격을 공정하자는 의견도잇서 결정할때까지는 신중한 연구가 필요하다고한다 그러나 공정제도를 설정하면 가격기준은 내지의공정가격이 상당히 비싸게 되여잇스므로비교적 저렴하게하고잇는 조선에서는 어더지안케 결정되리라고한다

蒙疆視察團 續續來京

견실한 건설의 길을 밟고잇는 몽강연합자치정부(蒙疆聯合自治政府)는지간 정부요인의 방일(訪日)시찰단파견 일행은 지난가경하야 조선사정을 인식하엿는데 이번또다시 세단체가 서로 전후하야 내지방문의 도중 서울에 들리게되엿다 이번에 오는사람은 몽강연합자치 정부문관의행정시찰일행 십칠명과몽강모직동업자 일행이십명등 사십칠명이다

回回教徒團도 後援週間에參加

부내 약초정(若草町)배우회지 『마호멧트』『교도단(敎徒團)』에서는 칠일오후한시부터 예배를열고 총후후원강화주간의 취지에찬동하야 상병병의 위문금을 모집하엿던바 육십사원이 달하엿스므로 단장『마호멧드·라-지』씨외 여섯명이 동일오후 용산육군병원을 방문하고 헌금하엿다

白衣勇士慰安會 銃後後援週間第五日

경기도 군사후원연맹에서는 총후후원강화주간 제오일인 명구일 오전구시부터는 용산연병장분원에서 그리고 오후에는 연병장분원에서 각각백의용사위안회를 열기로되엿다는데 랑곡(浪曲)만재(萬才)는 물론 한성권번 기생들의 응원하에 여러가지의 즐거운 푸로가 잇스리라고한다 그리고 십일일 오후에는 온양(溫陽)분원에서가튼 위안회를 열리라 한다

流行은亦是流行歌 안팔릴듯 팔리는蓄音器소리판

음악의 씨-즌을 마지한 금년가을의 경성은 시국의 반영인지 해마다 처처에서 열리던 연주회나 독창회가 드물다 그반면에 각가정에서는 『레코-드』로써 적은 돈으로 음악회를하는 가정이 상당히 만흐리라고 레코-드회사의 지정판매소측에서 말하는 것을 보면 예년에비하야 지지안흘려만치 만히 팔린다고한다 주인의말을들으면 사변개시직후에는 아조안팔니다시피 사가는이가 업더니 음악을 질겨하는마음은 생활이 긴장되면 될수록 강해지는것인지 요지음은 사변전이나 다름업시 팔린다고하는데 그중에도 군가가튼것이 만히팔리고 보통것으로는 유행가 양악으로는 가벼운 무곡가튼것을 조하하는경향이잇다한다

蹴球界總決算 三地方對抗戰 廿八日부터三日間擧行

今年度半島蹴球界의 總決算을지을 朝鮮三地方對抗戰은 朝鮮蹴球協會主催로 十月二十八、二十九、三十日의 三日間(每日午後二時) 京城運動場에서 擧行하기로되엿는데 出戰範圍는 中央支部(京畿道、江原道)、西鮮支部(平安南北道、黃海道)、北鮮支部(咸鏡南北道)이며 申請期는二十日까지라는바 寫眞四切版五枚(番號及氏名을記入)를 添付하야 同協會로 申請하기를 바란다하며 同大會의 競技規定은 다음과갓다

1、同試合은 每年一回式京城에서 行함
2、同試合에 出場하는 選手는 中等學校卒業生以上일것을要함
3、同試合에 出場하는 各地方代表選手는 當該支部가 이를 選定함
4、同試合優勝團體에는 同協會長盃其他의 優勝盃를 授與함
5、同優勝盃는 同協會의 所有로함
6、同試合에 잇서서 試合에出場하기위하야 要하는 經費는 十五人分을限度로서三等往復의 汽車賃을 同協會로부터 支拂함 其他諸費用은 各代表團體의 負擔으로함
7、全鮮三地方對抗戰에 派遣하는 朝鮮地方代表選手는 同試合을 參考로 同協會理事會에서 이를選定하야 同協會長의 承認을 要함
8、同試合은 리-그式으로行하고 九十分間으로함 其他一切規定은 大日本蹴球協會憲章、細則及同協會規約規定에 依함

慶應4A 明治2

【東京電話同盟】東京大學秋季리-그戰慶應對明治 立敎對帝大各一回戰은 八日神宮球場에서 擧行한바첫게임은結局四A對二로慶應快勝하엿다 (閉戰一時二十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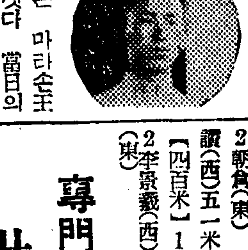
	一	二	三	四	五	六	七	八	九	
慶應	1	0	2	0	0	1	0	0	A	4A
明治	0	2	0	0	0	0	0	0	0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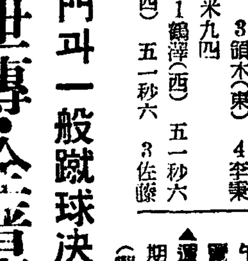
帝大	0	0	0	0	1	0	0	0	0	1
立敎	1	0	0	0	0	2	1	0	0	4

走幅跳 金君優勝 李君四百米에活躍

東西對抗陸上第一日

【東京支局發電】全日本陸上界의 精銳를總網羅한 第一回 東西對抗陸上競技大會 第一日은 八日午後零時四十分부터 神宮競技場에서열렷다 이날은明朗한스포-츠날씨로 風速四米二〇의 絕好한 컨디숀이엿다 西軍의主力部隊로參加한 朝鮮出身選手九名을 應援하려고 모여든 數百의 東京朝鮮人在學生中에는 마라손王 孫基禎君도 끼여잇섯다 當日의 戰績은 다음과가튼데 四百米레-스에잇서서 李君(景正)은 斯界一流를 제치고 一個中學生으로서 萬丈의氣焰을吐하엿다 그리고 金源璂(普專)君은 走幅跳에 當當히優勝하엿는데 今日의 三段跳에 큰期待를가지고잇다 (寫眞上은 金君、下는李君)





【百米】1吉岡(東)一〇秒六 2谷口(西) 3佐佐木(東)
【千五百米】1中村清(西)四分二秒二 2宮城(東) 3田中(東) 5洪顯文(西)
【高障碍】1村上(東)一四秒九 2川村(東) 3金原(東) 5李章完(西)
【投槍】1上野(東)六二米八七 2朝倉(東) 3頭木(東) 4李秉讀(西)五一米九四
【四百米】1鶴澤(西)五一秒六 2李景義(西)五一秒六 3佐藤(東)
【五千米】1村社(東)一五分一秒 2藤野(東) 3張任模(西)一五分三〇秒六 5崔俊根(西)
【投圓盤】1本藏(東)三九米〇九 2朴寶(西)三八米七九 3宮城
【走幅跳】1金源璂(西)七米三〇 2井上(東) 3湯淺(東)
【四百米繼走】1東軍 四一秒八 2西軍四二秒二
▲第一日得點 東軍百二十五點 西軍八十七點

專門對抗庭球第一日

【普專】勝 【世專】
×(菅、石田)4…4(金致淳、白行富)〇
〇(韓尚燾、姜鋼宇)4…0(崔寶燦、郡錫祐)×
×(金弘瑞、金元瑞)0…4(成基昌、張斗變)〇
第二라운드
〇(韓尚燾、姜鋼宇)4…0(成基昌、張斗變)×
第三라운드
〇(韓尚燾、姜鋼宇)4…2(金致淳、白行富)×

今日의運動

▲軟式庭球=神宮大會庭球男子大學專門學校對抗戰第一日…午前九時 京城藥專코-트(觀覽料=一般二十錢、學生小兒十錢)
◇京城中等學校庭球聯盟主催第二十回秋期庭球大會 午前九時 景福中學코-트(觀覽無料)◇府民庭球大會 午前九時 太平通府廳코-트(觀覽無料)
▲럭비=神宮大會럭비-選手權大會中等部第一回戰 培材中學對善隣商業 午後四時半 龍山鐵道球場(觀覽無料) ◇同高專部準決勝…水原高農對京城藥專 正午 普成專門對京城高工 午後一時半 ◇同一般部決勝 鐵道局對鐵道工場 以上京城運動場(觀覽料=一般二十錢、學生小兒十錢)
▲陸上=同德高女主催 第五回小學校 女子陸上競技大會 午前十時 昌信町 同德高女運動場(觀覽無料)
▲硬式庭球=神宮大會一般單式戰 午前九時 京城運動場코-트(觀覽料=一般廿錢 學生十錢)
▲運動會=進明高女、同德高女秋期大運動會 午前九時 同校庭(觀覽無料)

世專·全普專優勝

專門과一般蹴球決勝 神宮蹴球大會終幕

連四日동안 盛況을이루어온 第十四回朝鮮神宮競技大會 蹴球選手權大會最終日은 昨八日午後二時부터 京城運動場에서 專門部決勝…世醫專對藥專戰과 一般部決勝…全普專對昌寧戰이 擧行된바 別項戰績과가티 世醫專軍이 藥專을 모두 快勝하야 制覇하엿다 前記두게임이 끗난後中等部의普成、專門部의 世醫專、一般部의 全普專等에게 大會優勝旗와賞狀을 各各授與한後 同六時에散會하엿다

【專門部決勝】
世專3 藥專0
(前0−0、後3−0)

【一般部決勝】
全普專3 昌寧0
(前2−0、後1−0)

慶南昌寧蹴球團對全普專戰은同日午後四時부터 金和集(主) 李澤來、徐承德(線)三氏審判下에全普專軍이킥어프로開戰된바 三對零으로 普專軍이 優勝하엿다

[illegible]

(寫眞上으로부터 優勝한 世醫專軍과 全普專軍)

身病悲觀코 鐵道自殺

【鐵道局發電】칠일오전두시십칠분에 대전(大田)으로가든 화물제일천이백이열차가 군포역(軍浦驛)에 이르럿슬때에 경기도포천군소흘면이곡리(抱川郡蘇屹面二谷里)사는 윤상룡(尹相龍)(七)은 열차아페뛰여드러가서 머리가 깨여저서 즉사하엿다 조사해본결과 신병을 비관하야 자살인것을 알게되엿다

京電때쓰木炭車增臺

경성전기회사에서는 까솔린절약의국책에순응하야 현재목탄빠스두대를 운전하고잇는데성적이 조흠으로 느리기로되여 목탄빠스다섯대 장작자동차한대를 주문중으로 근근운전하기로되엿다

총딱

교원이 부족한관계에 이입(移入)이라도한다니이것은조흔데、
○ 또 언제처럼 호랑이만흔 조선이라고 겁나서 안올까 슬그머니걱정.
○ 학교는 지식만파는 상점이아니라 사람을다듬어 맨드는곳.
○ 하매 스승은 때릴길도 잇슴즉하고 생도는 마질수도잇슴즉한일.
○ 그런데 여기스승이 한개때렷다고 울며 불며 호소순례(巡禮)하는 생도가잇다니、
○ 때린 리유를 무른것업시 곡지통(哭至痛)할『사제애』의몰락.

曆

▲十月九日(日曜)陰八月十六日 ▲干支 甲戌 ▲寒露 ▲日出 午前六時三十五分 ▲日南中 午後零時二十一分 ▲日入 午後六時七分 ▲月出 午後五時五十一分 ▲月入 午前六時十分 ▲晝間 十一時三十二分 ▲滿潮(仁川)午前四時五十五分과 午後五時十五分

今日의天氣 曇

六〇六號以來의世界的發見！

淋疾治療의化學療法完成！淋菌必滅·醫界絕讚！

昨年度全世界醫學界의 最大發見으로서 治淋特效成分G—U—サイド 創製에成功하게된것은 確實히現代醫學의 偉大한 勝利를 意味할뿐만아니라 黴毒에對한 サルバルサン(六〇六號)以來의 最大의發見이라하야 全世界治淋界에 一大衝動을惹起하엿슴니다。

G—U—サイド 의特效因子는 從來의다른治淋藥과는 根本的으로相異하야 服用하면體內에 化學的作用을이르키여 淋菌에對한殺滅力의 强烈無比한것은 일즉全世界醫科大學泌尿科敎授等의 實地試驗에依하야 十中八九(85%—90%)의 完治率을 報告한바잇섯고 그後東洋에서도 試驗하게된지一年未滿에 그驚異的特效는實證되여 今日에잇서서는完治者屢萬을헤이게되엿슴니다。

特히本劑의特色은 注射나洗滌等을할것업시 一日五—六錠식 二—三日內服으로만 止膿止痛이迅速히되여前과가튼完全한健康體로 恢復된다는것은 各患者의實驗談이올시다。

急性 慢性을不問하고 淋疾로苦痛하는분！ 苦痛밧기前에 먼저本劑를一次試驗하야 根本的으로治療하기를바람니다。

일즉이本劑를服用하야 完治된患者의實驗談集은 淋菌撲滅의參考資料가될가하고 數十例를뽑아 各有名藥房에配置하엿사오니 參考하시기를바라나이다。

最近의臨床報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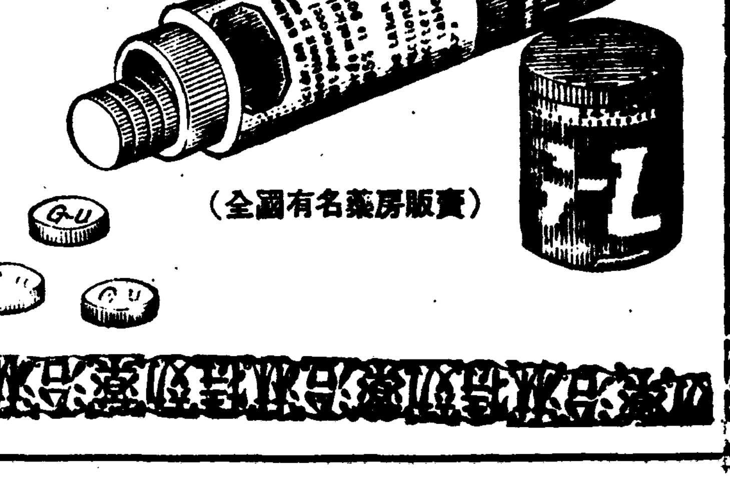
本劑에對하야 日本 瑞西 英國 米國의 各醫科大學皮膚科及泌尿科誌上에 數多한臨床報告가 發表된中米國에서一流專門家二十四氏의 最近報告에依하면 服用者總數一五七四名中 全治者一三三八人 即85%이며殘餘二三六人中一五七人即10%는 完治되지못하엿고 그남어지八〇名即5%는 結果不明으로되엿슴니다。그러므로 G—U—サイド의偉效는 무엇보다도85%라는治癒率이立證하고도남음이잇슴니다。

警告

本劑가從來에보지못한 淋疾特效藥으로서 昨年歐米各國醫學誌에發表된後 本邦에서試驗發賣된지一年未滿에 完治者數萬을내이여 누구나그効力에對하야 疑心치못하게된今日에잇서서 或은近似한廣告文 藥名等으로治淋特效藥이라한 模倣品이생길는지모르오니 十分注意하여 警戒하시기를바람니다。

新治淋特效成分

G-U-サイド
ヂュ



(全國有名藥房販賣)

中部版

京南一帶地價昂騰 坪當卅餘圓을呼價
南山周廻道路의開通따라 ＝한목보라는附近地主들＝

【京南】 인접한 지방으에 구연은 나날이 느러만가고잇는 현재경성의 중앙지대는 포화상태(飽和狀態)에잇서 경성부에서는 다만한번의 경남일대를 목표삼고하루바삐 선주택지구로 설정하고저 한가다대동아이될 남산주회도로(南山周廻道路)를 다단한시국을 타개해가며 급탈히공사진행을하고 잇는데 여곳에는 동묘지자리(東廟院共同墓地)십현재경성부 소유에 전이래원동이만평이잇고 남산뒤 총독부로부터불하바든 삼십여만평의 기지가잇서 경성부에서 이자원을 활용코저 다만주회도로 개통하기에만 열중하고잇는데 머지안허 개청될 여도로 좌우에 토지를가지고잇는 부근주민들은 때를만난다는듯지 재각기비싼갑을 부르고잇서 작년봄만하야도 평당오륙원에 매매되던것이 금년여름부터는 엄화파천황(破天荒)의세로 거를퉁하야 박밥금삽사십원씩을부르는것이 상례라는데 경성부에서 배를어무처잇던 여태원동동묘지터를 평당어십원씩을계산하고잇다한다

寧北水害義捐金 蘇萊面各里醵出

【蘇萊】 부천군소래면(富川郡蘇萊)에서는 북조선지방수해의연금을 각리에모집하엿는바 각리에서는 호응하야 미성이나마 다소거출하자하야 적기금액을 거출하엿다는데 동리별과금액은 다음과갓다

大和里三圓 新川里六圓二十錢 芳山里五圓五十錢 浦里三圓二十錢 水山里三圓四十錢 麥香里二圓五十錢 驚旨里二圓八十錢 雨花里五圓 樓里一圓九十錢 鼎峰里二圓四十錢 茂芝里一圓八十錢 玉吉里三圓二十錢 梧林里二圓八十錢 孫喜里三圓 合計金四十六圓七十錢也

價格으로는增加 內地移出朝鮮牛

【仁川】 지난구월중 인천항으로부터 이출된 조선우(朝牛)는오백구십칠두에 달하는데 이를전년동기에비하면 두수로는 약육십이두의 증가를보엿스나 가격으로는 어만육천이백칠십사원의 격증이되엿다 이것은 내지에서 말(馬)의 대용으로서 조선소의 수요가 증가된것은 물론이거니와 작년에 한마리에 평균오십칠원에불과하던것이 금년은 구십오원의 평균에 등귀되엿는데 이소를 이출한곳은 다음과갓다

▲香川縣에二百四十頭 ▲大阪一府八十五頭 ▲廣島縣四十八頭 ▲長崎縣十七頭 ▲靜岡縣十六頭 ▲岡山縣十二頭

綿布雜品等은低落 鐵物은依然騰貴
仁川港九月中의物價

【仁川】 천정부지격으로 폭등일로이든 갖은물까는 정부당국의 물가앙등 억압정책으로 폭리취체령을 실시한이래 점차고물가어는 현상인바 이제 구월중의 인천항의 물까를 인천상의(仁川商議)에 조사한바에의하면 철물류(鐵物類)가 폭등중에 비하면 오할(五割)이 전월보다 등하고잇스며 조미료(調味料)는 전월보다 이할(二割)의 등세이고면포류(綿布類)는 전월에비하면 구할(九割)의 폭리가저락되엿스며 곡물은 일할사부 잡품은 어할육부의저락되고 건축재료 연료(燃料)음료(飲料)비료등은 변동이업다는데 금후 물까동향에 대하야 인천상공계 관측으로는 철물류는 철기근시대에 부득이한사정으로 등세를난면이나 그외각종물까는 이상오르지못하리라한다

九日仁川神社에서 生業報國式執行
京畿道漁聯主催로

【仁川】 전시체제하에잇서서 생업보국에매진하는 이때에 경기도어업조합 연합회의 주최로관내각어업조합과 인천 금융조합 주안(朱安)금융조합 어업자사주식회사를 비롯하야 농산 어민보국식을 오는구일 오전여섯시삼십분부터인천신사(仁川神社)에서 집행하리라한다

都市問題會議中에 直通電話兩處特設

경성부에서는 십일부터 열리는 전국도시문제회의와 수도협회총회장인 부민관에 두회의기간중 임시직통전화를 특설하엿다

▲本局七五二四番 ▲同 七五二五番

同德高女運動會

부내동덕고등여학교(同德高女)에서는구일그학교운동장에서 교내운동회와 소화교유상공기대회를 개최

細窮民調查着手
龍山方面委員會에서

【京南】 용산방면위원회(龍山方面委員會)에서는 금년도 관내사십구정(町)내에 산재한 세궁민의『카ー드』조사와 토막부랑수태등을 절저히 조사하고저 오일부터 어십칠명의 정위원이총동원하야 십오일까지 세밀한조사를 행하기로되엿는데 담당구역과 위원씨명은 다음과갓다

龍山方面委員受持區域及氏名
▲三坂通大潤和 太正培 工藤鍊夫 ▲岡崎町 鍊兵町 齋藤三四郎 ▲梨泰院町 成俊德 ▲東氷庫 西氷庫 普成町 漢南町 李巡烈 ▲桃花町二區 姜志道 ▲桃花町一區 黃燦杜 ▲麻浦町 崔亨植 ▲岩根町 趙鍾熙 ▲山手町 金周鉉 ▲大島町 崔元順 ▲錦町 張桂煥 ▲靑葉町 一、二丁目 馬鍾健 金龍培 ▲漢江通 椋木彦五郎 ▲京町 榮町 出分喜四郎 ▲元町 一、二丁目 松村熊三郎 ▲元町 三丁目 淸水町 李昌成 ▲元町四丁目 黃義二 ▲西界町 富房有次郎 ▲桃花町二區 彌生町 金章烈 ▲桃花町(山) 帖佐喜次郎 ▲孔德町 新孔德町 麻里町 韓基昇 ▲龍江 土亭 大興 玄石 新水 舊水町 金章煥 ▲倉前 新井 賀中 上水登 下水登 汝矣島町 金東寶 ▲西橋 合井 望遠 唐人町 徐丙德

日本航海學校의 木曾艦仁川入港

【仁川】 일본항해학교의 연습함 목증함(木曾艦)은 오는십사일 오후 열두시에 인천항에 입항하리라는데 승조원 어백여명은

오는十三日은 戊申詔書渙發記念日
京城府廳에서奉讀式擧行

오는십삼일은 무신조서환발기념일(戊申詔書渙發記念日)이므로 경성부에서는 오전여덟시반부터 청원일동이 부청옥상에모혀 조서봉독식을 거행하기로되엿다

그리고 십삼일부터 십오일까지 삼일간에 빠처서 부내 송림소학교(松林小學校)에 간이연색장을 설치하고 일반가정에서 연색할옷가든 무료로 염색하여 주기로되엿다는바 시간은 오전아홉시부터 오후다섯시까지 옷갓을 가저오면 순서대로 물감을 드려주게되엿슴으로 일반가정에서는 어기회를 만히이용하여주기를바란다고한다

森林施業共勵組合 蘇萊面에서또創立

【蘇萊】 부천군(富川郡)에서는소래면 파림리(蘇萊面果林里)의농민들의 생활개선과 산림보호의 목적으로 산림시업공려조합(森林施業共勵組合)을 창립하기로내정하엿든바 지난삼일 파림리구장댁에서 산림관계 직원들회하에 산주총회를 개최하고 삼림시업공려조합창립총회를 개최하엿다는데 작기제씨가 역원에당선되엿다하며 일반은 동조합장성에 매우 기대한다고한다

組合長 閔正鉉 副組合長 金炳昇 顧問 金鍾濂 道家武 朱正族 李鳳善 理事 李九成 李鍾錫 全光善 宋夏燮 孫鍾賓 宋周燮 韓鍾錫 安壽選 南基弘 韓乘敎 李宇永 朱鳳煥

無料染色實施
仁川府主催로

【仁川】 전시체제하에 잇서서민간경제용화 소비절약의 목적을 관철시키고 헌옷을 경려시키기위하야 인천부 사회과에서

町洞氣分巡廻聽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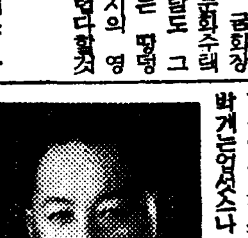
安岩鍾岩聯合町會

헐러진土幕우에 完成될坦坦大路
附近一帶를公園과名勝地로 ⑦

(安岩、鍾岩、聯合町會) 안암정 종암정어라고하면 경성치고는 궁벽한곳 이에 토막파 빈민파 그리고는 구내에 영도사(永導寺)를 가지고 잇는곳으로 구자스런 송여죤이나 연상시킬 어룹데면 한개 전형적인 빈촌(貧村) 어다 어룹이 개천이든、섬산인축 메마른단순한 모래바다에 불과한아한개—얼던지고도 개천구실을 해보기는 논둑는 느진봄케와 장마지는 여름 면철동안밧게는 업는 안암천이 개천아닌 개천이빈민들의 토막건물로서는 훌륭업는지역이엿할것은 못지안어도 얇읍어여서 어마도 배은 칠신 벌을듯한 수다한 토막들이 개천양쪽 제방위로 다닥 다닥 부려산다는것이 어동내의 빼지못할 풍경의 하나라고하면 응당독자는 동내전체의 번민상을 상상코도 남음이 잇슬거다 어떠케 궁벽하고 가난하면 어동내가 일조에 경성부의 회기적인 구역정리로해서 정준단이나 금화장 부럽지안흘 공원지와 문화수택지가 되리라고하니 사람도 그러커니와 비록 말못하는 땅덩이기는하나 도시부근토지의 영고성쇠야말로 예단키어렵다할것이다

×

이번에 새로설립된정회는 구안암 종암 두정회가 합한것으로 어룹도 사이조케『안암 종암연합정회』로 되여잇다 호수로 떠진다면 정호수 팔백여호중에서 종암정은 겨우 일백사오십호밧게는안되여 호수의 대부분은 안암정에 차지하고잇는 형편이다 신년전만해도 거의사할모줌 궁벽한조이어서 더구나 여롬장마철만되면 동내를 서의 둘러싸고잇는 안암천에 물이넘어 동내는 흡사히 섬(島)처럼 되여버려 밧갓과의교통은 두절, 문안엘가라면 도를길로 멀리영도사까지 나가가지고 비럭길을 더듬어서 동소문으로 빼지는수박게는업섯스나 지금은 재박공



사는 거지바와정되엿고 더구나 경성부의구역정리로 경마장에서 안암정을꿰뚤코 동소문에이르는 탄탄대로가 새로나게되여 방금 주야겸행으로 공사를진행중이다 따라서 그이마살을찌프리게하던 토막들도 어느틈엔가 헐려버려 지금은 자최조차볼수업게되엿고 동내의 대통맥을어룹 새로뚤린십구미를 신작로야말로 호화롭기그지업서 르통신미물론 보도남은 구미둘에는 젓나무 한줄 벗꼿 나무가 두줄 어러케 경마장에서 동소문에이르는 오리길을 장식하되 중간중간에 전평식소공원을두어 산책객의휴식처로삼으리라고하니 어것이 완성되는날이면 창경원의『사구라구경』쯤은 어린애갈에 새로운『사구라』명소로 등장하게될것은의심업는노릇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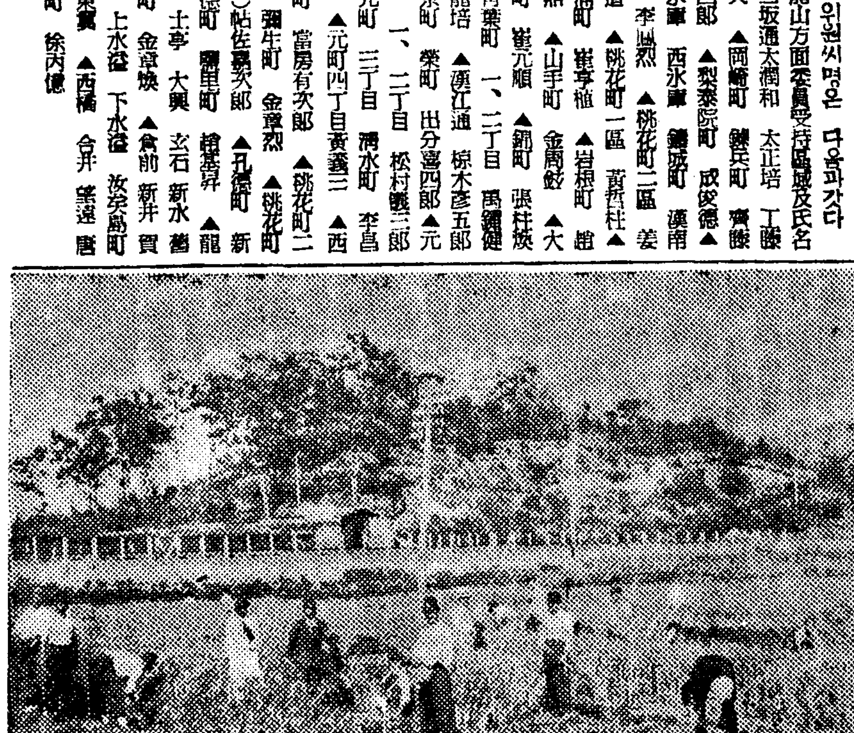
안암 종암두동내의 굉장의발전은이에만끗칠것이아니다 바로 안암리뒷산소나무가 욱어진오목한 골잭은 이롭노픈 영미원소(永徽園)—어곳을 중심으로 공부에서 오만여평을 매수해가지고 장차는에 뭇지안흔 대공원을 만들기로되엿다고하니 어것마저 완정되는날이면 부근일대의토지대보다 명승지로도 훨씬이름망종은 엄와대경성유수의 공원지대로 화할것은물론 토막이헙니고난 터우에는 울긋불긋한히한한 문화주택들이 자리가배좁도록 드러안게될것은 명약관화하다 정회의 본격적활약기도아마 이때부터일것이다

×

정회총대로 더구나 십팔년동안이나 동내의 번영을위하야꾸준히힘쓰든 유해창(柳海昌)씨를 안암정자택으로 차저드니 다음과가티 말한다

처음내가 어동내에 이사해왓슬때는 집이라곤겨우 팔십가호가될까 말까한 두뫼산골이엿지요 더구나 장마나나면개천이넘처 꼼짝마키고 참사람살곳갓지안터니 어러케커젓습니다 더구나이제 구역정리만 완정되면『사구라』명소로 공원지대로 얼마던지 발전될여지가 잇게되엿습니다 미력이나마 총대의직책에 부끄럽지안토록 안암종암두동내의발전을위하야힘쓸노력할생각입니다

(사진은 총대유해창씨)



東新校記念式
十日商科校舍서擧行

서내도화정(桃花町)에잇는 사립동신학교(東新學校)에서는 오는시월십일이 동교창립이주년기념일에해당하므로 이날오전열시부터 동교강당에서 삼주년기념식을 성대히거행하리라는데 동교는소화십년 창립이래로 동교직원들의 꾸준한 활동으로 날로발전을 보게되여 금년봄에는동교상과(商科)를 일취월장하기위하야 구교사수표정으로부터 현교사인동화정으로 옮기고 착착증격운동에 매진하고잇는중으로장래가 양양하다고한다 그리고게속하야 십이일은 오후일곱시부터 시내중앙청년회관강당에서동교소학과상과합동학예회가개최되리라한다

義捐金二百圓 江華서關北에

【江華】 본군보도단회와 가리 강화신문기자단목요회(木曜會)에서는 그간 관북수해구제금을회금하야왓던바 지난삼일 강화조합으로 하얏는데 강화성내소학교(城內小學校)생도일동으로부터 아름다운 구제금 구원이십전을회종으로 정산하얏던바 총취금액이 일백구십원팔십전이고 의류가 삼천이점으로 지난오일부로써 함남정평군수에게 의뢰하야 신상부흥회(新上復興會)에 전달토록수속을 완료하얏다한다 그리고금반 구제금품에 잇서는 모집이아니고 순전히 취급에 지나지안엇것만 그가터 막대한금품이 취급되엿슴에대하야취급당국인목요회에서는 일반에게 경의를표하야 마지안는다고 한다 또강화군파 면소를 중심으로 모집중에 잇는 구제금품 사백여원도 불원간 사회사업협회로 송부하리라고 한다

長湍郡의農民데ー
適期稻刈를實施
反當實收高豫想投票

【長湍】 장단군농회에서는 농민데ー장시이래 매년수답이앙기념행사를하야 농사사상을 고취하야왓섯는데 다시추수기에 농민데ー를 설정하야 의미잇는 일경에 장단농업실수학교 실습답에서 관민다수집합하야 베비는식을 성대히거행하고 반당수확고를 행하엿는데 당선자는다음과갓다

一等三石四斗 白玉基 二等三石二斗五升 井上直吉 三等三石二斗三升 朴鶴洞 同二石四斗五升 金洙炳 同二石五斗一升 申庸彦 同二石二斗五升 木村欣

(사진은 長湍의秋農民데ー稻刈光景)

農民報國日 道幹部督勵出張

【大田】 오는구일전선일제히거행되는 농산어촌보국일(農山漁村報國日)에 정지사(鄭知事)를 위시로 도내각부락 보국작업사항을시찰하기로되엿다

鄭知事 論山 兪産業部長 燕岐 公州 島山警察部長 大德郡 李農振課長 天安郡 田中同主事 扶餘郡

巡查試驗合格

【全北支社發】 전북도에서는 지난구월 십、십일양일간 순사시험을 시행하엿던바 수험자 어백오십사명중 어십오명이 합격되엿다는데 그의씨명은 다음과갓다

合格者氏名
李起用 廉東林 朴楨祚 李在盛 朴碩根 韓用命 申道宗 黃健澤 蔡南植 朴佳洙 梁奇鉉 金奎泰 鄭淳植 金漢斗 鄭壽昌 尹炸重 鄭奇模 張石龍 金奎範 金慶斗 金璣衡 梁基元 姜洛昇 金貞洙

江華傳燈寺探勝
十一日까지團員募集
本報開城支局後援

【開城】 천고마비한『하이킹의』시즌을마지해서 개성고려청년회(高麗青年會)주최와 본보개성지국후원으로 오는십륙일 강화전등사(江華傳燈寺)를 탐승케되엿다 이절은 경기도본산(本山)으로 역사기픈 고찰이바 일반은 일측부터 이절을 탐승키로희망해엇던바 이번고려청년회에서는 이석에 감하야 탐승단원을 모집키로된것인데 회비는 절반이나 동회에서 부담키로되엿다하니 일반지망자는 이기회를 일치말고 만히신청해주기를 바란다하며 요항은 다음과갓다

▲日時十月十六日 出發十七日歸着 ▲會費五圓 ▲路順十月十六日午前八時出發 高青會館—頌井浦까지(빠ー쓰) 頌井浦—仁華까지(船便) 傳燈寺—草芝里(빠ー쓰) 草芝里—仁川港까지(汽船) 仁川月尾島(一時間休息) 午後一時五分仁川出發京城着 京城國防展覽會觀覽(歸着) ▲申込金十月十一日까지 ▲集合場所(十月十六日午前七時四十分內로高青會館까지) ▲定員二十名

愛國的土地急行大分讓

時局에順應한大西土地의大陸進出에際하야
武士魂을行動力에傾注한
愛國的土地分讓을보시라

(1) 不毛荒無地를開拓하고이것을利貨活用함은一大國益이다
(2) 自然에接하고保健과體位向上을圖함은國策線을것는것이다
(3) 不動의土地를商品化하고價格을公正케하야써投機를抑制함은重要한經濟政策이다
(4) 獨占死藏의地를大衆에開放함은一大社會政策이다
(5) 特히國策에呼應하야愛國公債로써代金으로振替大歡迎

府內隨一의勝地 明眉의風光과雄大한
景觀을자랑하는無雙의保健厚生地

新吉町 愛の京住宅地急行大分讓

土地界의大革命……土地大덤핑
總坪數一萬坪……一劃百坪內外
勿驚一坪金八圓부터……各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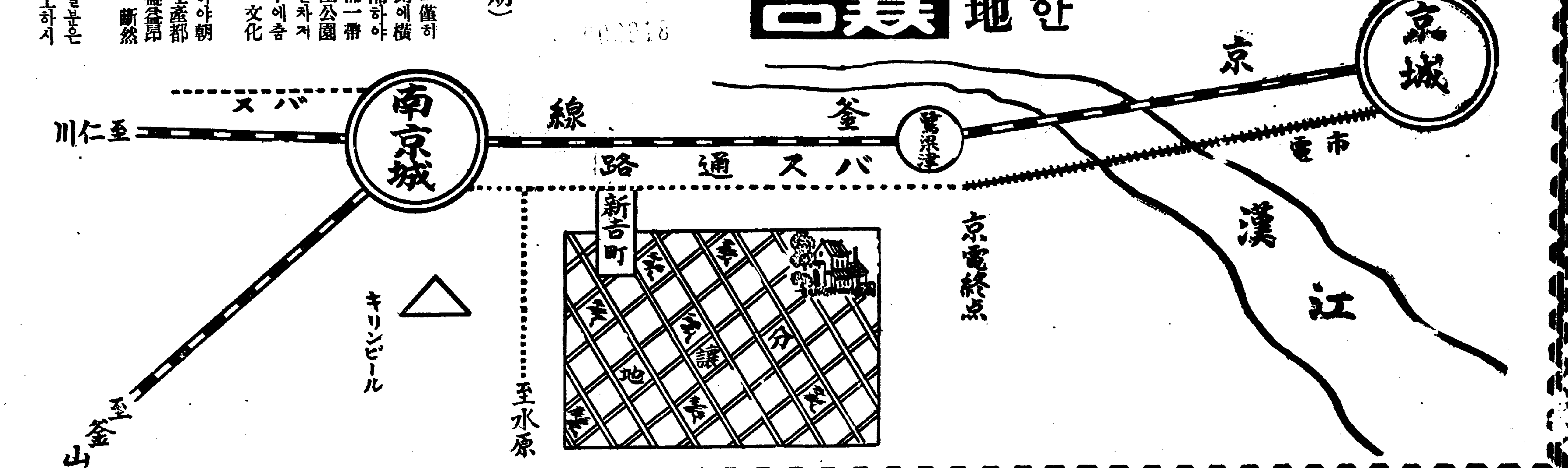
◎既設文化住宅原價로提供합니다

賣出期間 十月九日부터十月十三日까지 (絶對無延期)
(賣出初日은午前五時營業開始)

現地說明 鮮都京城의西南僅히二里 京釜線京仁線의分岐點南京城驛(永登浦)에서徒步로僅히十分市電뻐스連絡으로 鮮都의中心에서 三十分 新吉町停留所에 下車하시면左側에橫在한緩傾斜의 松林丘가 分讓地로서 冠岳山의翠巒을 背景으로 紺碧의漢江을 隔하야前面멀리 奇峭北漢山을 眺望하고 朝鮮神宮 京城神社를 奉祀한 老樹鬱蒼한 南山을轉觀하며 永登浦一帶를眼下에 煤煙과噪音을멀리한 理想的絶對健康住宅地입니다 一步나서면 鮮都의암퓨ー스센타ー鳳山公園의丹楓노리에 或은 船遊에 又는 釣魚에龍鳳亭 漢江莊에 俗塵과 疲勞를업새고 文祿戰役의 史蹟을차저서歲月가는줄을모르며 漢江의淸流에 夜船을저으시면 南山의달이 은은하고 白鳥가月下에춤추며 凉風이颯颯하야 興趣가끈일줄을모릅니다 또 附近에는 小學校 工業學校等이 잇스며 모든 文化敎育施設이完備합니다

將來의發展性 當地는大陸前進의兵站基地인半島의心臟部로서 鐘紡、東洋紡을비롯하야朝鮮ビール、キリンビール等 大工場이比建하야躍進産業日本의典型的生産都市의裝備는着着完成이되가워지고잇습니다 따라서當地一帶의地價는益益昂騰의一途를보이고 住宅難의悲鳴은날로노파저서 膨脹의威力을 制壓할길이업습니다 將來의發展은 斷然코疑心할餘地가업습니다 好期는不再來 我社의 大英斷大奉仕를보라 오라 今日의躊躇는千載의恨

賣出中大奉仕 觀察하실분은弊社營業所(太平通二 南大門前)로 來臨하시던지又는 汽車利用하실분은南京城驛(永登浦)에서 下車하시면 現地까지自動車로 無料案內하겟습니다 또買上하시는손님에게는 汽車電車의 復券을提示하시면 全額을拂戾하겟습니다



契約方法
契約과同時에 着手金으로서 三割 更히
一週間以內에 三割 殘金은 登記와 同時
에 拜受하옵니다 그리고 下記口座를 利
用해주십시요

取引銀行

京城府	安田銀行	京城支店
〃	朝鮮殖産銀行	京城支店
九州	安田銀行	福岡支店
〃	三井銀行	福岡支店
〃	住友銀行	福岡支店
東京市	第一銀行	本鄕支店
〃	安田銀行	本鄕支店
〃	第百銀行	本鄕支店
熱海市	伊豆銀行	熱海支店
名古屋市	三井銀行	名古屋支店
〃	安田銀行	名古屋支店
〃	名古屋銀行	新榮町支店
大阪市	安田銀行	堂島支店
〃	住友銀行	福島支店
廣島市	安田銀行	廣島支店
〃	第一銀行	廣島支店
〃	第百銀行	廣島支店
〃	藝備銀行	銀山支店

大西土地拓殖株式會社
京城府太平通二丁目一〇二番 (南大門前)
電話本局②三一九三、四〇六〇番
振替京城二一七一七三番

博多營業所 福岡市下小山町三〇番地 電本三八七八、五三七九番
東京營業所 東京市本郷區本郷三丁目二番地 電小石川一二九、三二一九、五一一九〇、六五九二番
名古屋營業所 名古屋市東區東新町一六 電東七五二、七一九〇番
大阪營業所 大阪市北區堂島濱通一丁目五七番地 電北五四九、六三三〇八番
廣島營業所 廣島市山口町一〇番地 電廣島八〇三五、八三二三番
仙台台灣營業所 (開設準備中)

長篇小說

薄命 (115)

韓龍雲 作
鄭玄雄 畵

결혼 十二

「아무가 사왓던지 먹으면 고만이지오」
정식이는 포도 한송이를 드려서 먼저 먹는다
「어서들 잡수시오」
하는 대철이는 포도를 그중 깨끗한 송이로 골라서
「이것이 좀 괜찬은것이요 잡숴보서요」
하고 순영이를 준다
「에그 먼저 잡수시지오」
순영이는 공손히 바드면서 만족한드시 우슴을 먹음다 대철이는 다시 포도를 뒤적어려보앗스나 순영이를 준것만치 먹음직한 송이가 업섯다 그중에서 조금 나은것을골라서
「포도가 아직 덜익어서 그런가 변변치 안쿤요 그대로잡수서요」
하고 정순이를 준다 정순이는 뾰루퉁하야서 선뜻 밧지 아니하다가 부득이 한듯시 바드면서
「제게는 이것도 과하지오 그중 조흔놈은 서선생님에 가

저가시고 서선생님은 생전에 포도 한번도 못자셔보섯나바 남보고 먹어보란말슴도 아니하고 그중 조흔것을 얼른 집어자시게」
하면서 정식에 뒤에다 눈을 흘긴다 정순이는 정식이가 대철이처럼 다정스럽게 무엇이던지 자기에게 권하지아니하고 자기 혼자만 뀌역뀌역 먹는것이 밉살스러긔도하얏스나 실로는 대철이가 조흔 포도는 먼저 순영이를 주고 그만 못한것을 나종에 자기에게 주는것이 공연히 새암이낫섯다
「아참 여젓습니다」
하는 정식이는 자기가 가진 포도 송이에서 먹던 부분을 떼이고 남은것을 주면서
「먹던데는 떼엇습니다 잡수십시오」
하고 웃는다
「나는 뭐 남먹던 턱찌끼만 어더먹는 사람인가요」
정순이는 발끈하야서 얼굴비치 변하면서 포도 송이를 채떠리니 포도가 러지면서 뭉이 된다
「이거 웬일이서요 그러실것 무엇이서요」
정식이는 불쾌한 기색을 짓는다 대철이와 순영이는 수건으로 옷에 뭍 포도물을씻는다
「혼저 만히 잡수서요 나는갈려요」
정순이는 어리서서 옷을 툭툭 털더니 불룩거하고 간다
「어데 오서요」
「그러지 말고 어려오서요」
「이리 오너라 가치가자」
그들은 여러번 만류 하엿스나 정순이는 뒤도 안도라보고 헤죽헤죽 간다
「그럼 저도 가겟서요」
순영이도 일어섯다
「가거나 말거나 내버려두고 우리는 더 놀다 가십시다」
하는 정식이 말에
「그럴수가 잇서요 둘이 왓다가 하나만 떠러저서 잇스면 되겟서요 더구나 불안해서가 는데」
순영이는 옷을 매만지더니
「그럼 안녕히들 놀다 오서요 동무가 가니까 저는 먼저가 겟서요」
하고 대철이를 한번 더 보더니 거름을 옴긴다
「자 그럼 우리도 가세 다들 가시는데 무슨 재미로 우리만 떠러지나」
대철이가 주섬주섬 거더가지고 일어선다 정식이도 마지못하는듯이 일어섯다
「애 정순아 가치가자」
하고 조금 다른길을 하던 순영이는 그들에 뒤에 따라오는 것을 보고서 그럴것이 업다는 드시 천천히 거럿다 순영이는 정순이 하는것이 우습기도하고 한편으로는 고소한듯도 하얏다 아무리 보아도 대철이가 정식이보다 나은것이 엇는듯 하야서 그것이 더욱 거북다 순영이는 아까가는 정순이보다 뒤에오는 대철이를 자주도라보면서 속으로 웃고 오는데 아까 대철이가 포도를 조흔것으로 골라서 먼저 안 정순이보다 제일몬 자기를 먼저 준것은 확실히 자기에게 마음이 잇는것이라고 생각되여서 여간 기뿌저 아니하엿다

라디오 푸로그람

十月九日 (日曜)

◇午前七時五〇分 (東) 라디오體操(第一放送에依함)
◇同一〇時 報國平南號命名式實況(國語)(平壤)─平壤飛行場으로부터中繼─
◇同一一時五〇分 氣象通報
◇正午 (東) 時報 京城立唱 一、엽山打鈴 二、뒤山打鈴 三、개고리打鈴 四、도라지타령 五、방아打鈴 六、자진방아打鈴 卓福萬 李命吉 李命山
◇午後〇時三〇分 뉴─스
◇同一時 俗曲 一、平壤歌 二、배뱅歌 三、夢金浦打鈴 四、興打鈴 五、사발歌 崔禧成 李炳祐 李忠善
◇同一時二〇分 時調 一、平時調 二、辭說時調 金洪斗 朴...
◇同一時三〇分 大衆名曲鑑賞(레코─드) "悲愴交響曲"─차이코우스키─作曲
◇同四時 뉴─스解說 金管
◇同六時 管絃樂 一、金婚式 마리─作曲 二、기쁜꿈 렉케르作曲 三、저녁별 와그너─作曲 四、바르카롤레 로─드作曲 五、黃金杖 쉬레페그렐作曲 DK管絃團 指揮 洪蘭波
◇同六時二五分 修養講話 明倫學院 安寅植
◇同七時 뉴─스 天氣豫報
◇同七時三〇分(平) 西道歌謠 一、愁心歌 二、역금 三、긴雜逢歌 四、자진雜逢歌 五、變調雜逢歌 六、베다라기 吳明仙 朴錦姬
◇同八時(平) 獨唱 一、오·스잔나 아메리카民謠 二、스와니─江 포스터─作曲 三、댕자꼿 山田耕作作曲 四、音樂의殿堂 아일랜드民謠 五、月夜의세레나─데 폴리民謠 六、당신께드리는꼿 보헤미아民謠 七、남몰래흘리는눈물 도니제티作曲 多浩
◇同八時三〇分 唱劇 一、短歌 二、春香歌中 ...
◇同九 라디오小事 ...

第一放送

◇正午 (東)野球
◇午後六時 童話劇(白喜北)
◇同六時二五分 (城)講演
◇同七時三〇 (東)文化演藝
◇同八時 (東)講談
◇同八時三〇 (東)箏曲
同八時五五分 (東)드라마 境"方春海作 徐一星
◇同九時四〇分 (東)時報 뉴─스 氣象通報 明日曆 翌日順序
◇同一〇時 地方으로보내는뉴─스
◇同一〇時一〇分 레코─드音樂

十日 (月曜日)

◇午前七時一〇分 라디오體操 (第一放送에依함)
◇同一〇時三〇分 氣象通報 料理法『紅豆芽』日用品時勢
◇正午 (東)時報 室內樂(레코─드)
◇午後零時三〇分 뉴─스
◇同一時一五分 衛生講演『어린이와, 도라홈』醫學博士 公炳禹
◇同四時 뉴─스 職業紹介
◇同六時 라디오學校『人種이야기』金道泰
◇同六時二五分 어린이新聞
◇同六時三〇分 週間情報
◇同七時 뉴─스 氣象通報 銃後美談 天
◇同七時三〇分 講演『各道의자랑』(四)慶尙道篇 高元勳
◇同八時 (東)管絃樂 ─비제─作品特輯─ 一、組曲 벨르의아름다운處女 가、幻想曲 나、세레나─데 다、메누엣트 라、行進曲 마、집시의춤 二、組曲 어린이의遊戲 가、行進曲 喇叭과북 나、人形의자장歌 다、卽興曲팽이 라、二重奏『적은男便과적은婦人』마、갸롭프『舞踊會』 日本放送交響樂團 指揮 杉山長谷雄
◇同八時三〇分 古談 恩義書지 金丸
◇同九時 京畿歌謠 一、小春香歌 二、執杖歌 三、赤壁歌 四、재비歌 張香蘭 全光泰
◇同九時三〇分 뉴─스解說
◇同九時四〇分 (東)時報 뉴─스 氣象通報 明日曆 翌日順序
◇同一〇時 地方으로보내는뉴─스
◇同一〇時一〇分 初步國語講座 (一七) 宋今旋

第一放送

◇午前六時三〇分 支那語講座
◇正午 (城) 謠曲
◇午後六時 (大) 童話
◇同六時二五分 (城) 講演
◇同七時三〇分 (東) 歌謠
◇同七時四〇分 (東) 講演
◇同八時 (東) 管絃樂
◇同八時三〇分 (東) 落語
◇同八時五〇分 (大) 淨瑠璃

極光映畵製作所의 "漁火"를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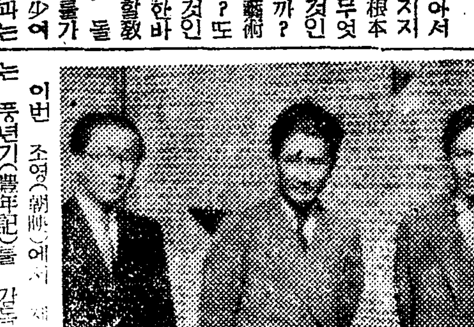
極光映畵製作所의第一回作品漁火의試寫會가 지난四日밤열리엿다 今年은朝鮮映畵界의例年에업는 豊穰期로 그收穫에 對하야 映畵에 關心하는이들뿐아니라 朝鮮文化에留意하는이들까지 그成果에 注目하게되엿잇다
이것은 映畵그自體가 單純한 娛樂的性質을 떠나서하나의 藝術로 또는 文化伸長의 方途로 생각하기에까지 이르기때문이다
그러나 이때까지 朝鮮映畵의現狀에 비추어보아 여기서 飛躍的發展을 바랜다는 것은 하나의 奇蹟을 企待하는데가 까울는지도모른다
이번 漁火의試寫를 보아서도 이에가까운 實感을가지지안홀수업다 朝鮮映畵界에根本的으로 缺如되여잇는것은무엇인가? 스타디오가 업다는것인가 技術이不足하다는것일까? 또는演技者나 監督者의 藝術的才能이 未及한까닭일까? 또는 씨나리오가 좃탓다는것인가? 아니 이모든것을 總括한바가 映畵를 藝術的으로 完成할敎養이 뒤떠러저잇다는데로 돌릴것인가? 여기서 이問題를가지고 얘기한다는것은 多少여試寫에對한 小感을쓰는것과는 어긋날는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漁火"(뿐아니라 다른作品도)를 보고난후에 머리에남는것은 이러한 全體的問題인것은 속일수업는 事實이다

─○─

自然은 人生보담 雄大하고 不可思議요 아름답다 그러나 人生의 生活이라거나 現實이라는것도 그러케 미웁기만하고 보기에興趣업는것이어니다 『漁火』에서 우리는 自然보다 좀더 떠러진 人生의어느한 部面을보앗다。말하자면 自然의아름다움에 調和되는 人生의香氣가업섯다。東海의맑고푸른바다와 하─얀飛沫이 부르러일어나는 壯快와 九龍瀑의 爽快한흐름을 카메라의힘을빌어 넉넉히 마음에기쁘게는길수잇다。
그러나 그사이에 點綴된人生은 너무나 無氣力하고 싱거웟다 물소리가 때때로굽게 시언하게 들려왓다。그러컨만 사람의말소리는 돈이아름다운 물소리에比하야 너무나 濁色이엿섯다。예를들─순해 마을 朝鮮映畵에比하야 뒤떠러진것은아니다。그러컨만 우리는朝鮮의 朝鮮말의 素朴的이요, 아니그보다도 더 素朴하고 自然的인것과 接해보일이업다。漁火도 어떤世界에서 멀리떠나지못햇다。면저 음「어머니어서오세요!」하는 仁順의말소리가 너무도 明朗하고 魅力잇기때문에 마음에 선듯 저내게든 그럼으로感情도 곳쳐여지는 會話을느꼇다。
힌옷을입엇기때문에 朝鮮的色彩가 난다는것은아래作에서도 오는常識이겟거니와 너무도산뜻하고 말쑥한 힌옷이기때문에 여기서 도로혀 우리는原始된 新鮮感을느긴다 좀더무든듯 더러다나 漁村에서 가난한 生活을하는 그들이 그러케도 깨끗한옷만을 입엇는가? 혹여 名節때나든듯 그리고 몸에꼭마저서 주름잘하나 에서도따뜻하고 부드러움을느끼는그런옷을입혓을수는업엇든가?

─○─

어映畵에서 씨나리오만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그러케야 주떠러진것이라고는 볼수업다 그러나 여야기가 너무나凡俗스러워서 여기는 監督과演技者와의 다이아미크한迫力을가저와야 할것이다그러컨만 카메라의 角度는이들의 肉體를通하야 하나의 生命을發見하기에까지 이르지못햇다 朝鮮映畵를 볼때마다 한가지로느끼는것은 너무나그들의 얼굴에똑똑한 表情하나를 차저볼수업다는것이다 우름하나를제대로못울고웃음하나를 똑바로웃저내지못하는 어려케도답답한 民族이잇는가하는것을 생각케된다 이런不진을亦是『漁火』에서도 차저볼수잇섯음은 하나의遺憾이아닐수업다
좀더낫고 좀더조흔自己自身을發見하라는것이 살어가는人間自體의希願이요 努力일진대 모름직이 여기가로두어잇는하나의큰課題─그것은좀더人生에對한 工夫와 敎養이요 藝術에 對한理解와 情熱이요 이것이 映畵에關係하는者로서 는더 한層必要한일이아닐까?
우리는 決코오늘의잘못만을 나므래고싶지안다 오직完成하라는 하나의일─藝術에對하야 더큰努力과 知慧와 그를뭇까지貫徹하는 精神─魂이必要할것이아니랴? 敢히試寫의所感아닌小感을一言한다(浪礁人)
(十六日부터 黃金座에서上映)



이번 조영(朝映)에서 제작하는 풍년기(豊年記)를 감독할 일활감독부(日活監督部)의 이병일(李炳逸)씨는 일경이사차 김정혁(金正革)씨와함께 본사를내방햇다 (사진中은 이병일씨)

團成社의 秋夕映畵

八日부터特別興行

서대문성사에서는 추석명절을 거렴으로 다음파가튼 프로를가지고 특별대흥행을 하기로되엿다한다
一、桃源鄕(東和商事提供)
二、深夜의마돈나(파社作品)
三、鐵窓에서戰線으로(封切)
(大衆席 十錢均一)

待望久しき……半島映畵界革新の先驅的烽火篇！愈々完成！……全鮮封切迫る！

松竹キネマ會社後援 極光映畵社第一回作品 三三商會配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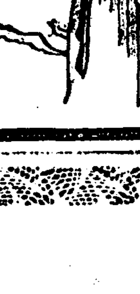
漁火

いさりび

可憐なる半島娘を圍る哀戀純情のローマンス！漁村と都會に描く抒情曲!!

監修 島津保次郎 監督 安哲永 音樂 堀內敬三

朴魯慶 朴學 尹北洋 李鉉 羅雄 桂星霞



京城 黃金座
平壤 大劇
大邱 キネマクラブ
釜山 寶來館
仁川 愛館
木浦 木浦劇場
鎭南浦 泉樂館
新義州 新劇場

慰問品にはぜひキング
勇士が一番喜ぶキングを送りませう

キングは面白く爲にな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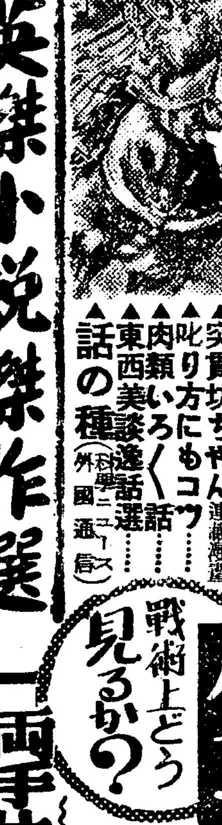
戰時下國民の無二の友！修養に慰安にキングが一番!!
戰線でも銃後でも大歡迎！
◎無限の樂しみがキングにある！
◎活きた世の中がキングで分る！
◎處世成功の鍵がキングにある！
◎幸福榮榮の道がキングにある！
◎忠誠愛國の魂がキングにある！
◎戰局國策の正しい知識がキングにある！

大評判！十一月號
見よ精選豪富日本一の大內容!!
大賞品山積 一万餘名大當りの大懸賞

新掲載 現代小說 美しき青春 横山美智子
最近メキメキ評判を高めて來た作者が、全身の情熱と慧智を打ちこんだ大力作。姉妹のやうな親友同志の間にもつれ合ふ友情と戀愛と結婚と運命、第一回早くも涙の大波瀾、女流作家でなければ見られぬ處女の心の秘密と美しき情愛。到る處大評判の名小說。

卷末附錄 讀切小說傑作選
▲人生諧謔 柿の甚太……坪田讓治
▲悲痛艶麗 女白虎隊……邦枝完二
▲清き戀愛 靜かなる奔流……横山美智子
▲忠烈豪勇 身代り柴田……橋爪彦七
▲愉々快々 あべこべ兄弟……益田甫
▲股旅仁義 兄弟合羽……佐藤緑平
▲大笑落語 つもり泥……金原亭馬生

特別讀物 英傑小說傑作選
▲情の名君 うち消せ首帳……大倉桃郎
▲名匠秘話 秋平とお町……入江新八
▲名將物語 乃木將軍の瘤……上司小劍



國策小唄(八詩人)
▲突貫坊ちやん(連載漫畫) 愉快な初め大傑作八篇發表。
▲叱り方にもコツ
▲肉類いろいろ話
▲東西美談逸話選
▲話の種(科學・ニュース・外國通信)

現代名士五分間傳記
新駐英大使 重光葵(澤田謙)
戰時陸軍の大立者 東條英機中將(花村哲夫)
喜劇王 曾我廼家五郎(細川辰彦)
佳話珍話名士の面影 (現代七名家の面目躍如たり)

挾込折本附錄 言志錄 (佐藤一齋著─友田宜剛抄譯)
▲大西鄕が日夜熱誦の大名著！
▲修養に成功に國民必携の名附錄

最近のソ聯を視察して 外務省事務官 仲內憲治
誰の國ソ聯の實情がハツキリ分る驚異の實話。國境いつ爆發するもよい心の準備の爲全國民必讀！

戰爭今昔ばなし 維新から現代まで 貴族院議員 田中館愛橘
家鄕より出征軍人に送る手紙 (八波則吉 岡本かの子 村岡花子 三氏執筆)
時事問題早わかり 世界大戰起るか？ 經濟學博士 太田正孝
全國中等學校長の人生訓處世訓 十九氏執筆
思ひ出しては笑はずに居られぬ話 (誰でも腹を抱へて大笑ひ！五名家極秘の縮尻話公開！)

訪問と交涉の秘訣 國際問學 渡辺幸吉
人物修養の着眼点 前東京控訴院長 皆川治廣
限りなき心の力 (大評判の感話) 松原致遠

兩手片足無くて常人以上の大活動！ 萬人大感激 奮ひ立つ！ 希望は勝てり 中山龜太郞氏の體驗談
六歲にして不幸一本足となつた中山氏が慘憺たる境遇を克服して苦學大學を卒業し、今や國民精神總動員中央聯盟、陸海軍傷兵保護院囑託として大活躍。見よ半生の苦心、數奇な身の上、その母性愛、その信念、悉く涙ならぬはなく、眞に人間の大感激

隨感隨想
▲出話と人柄……小西重直
▲偶感……安達謙藏
▲熱と眞劍……神崎初子
▲嘶……中野浩一
▲石田三成……近藤路
▲母性愛……杉本光平
▲恩師……香坂昌康
▲太陽の心……正富汪洋
▲懸賞……片川八郎
▲發奮奉仕……剛島十二
▲皇居に敬禮……小口みち子
▲榮冠涙あり……往田進

戰術上どう見るか？ パナマ運河とスエズ運河 海軍少佐 山口肇

特輯口繪 支那事變畫報 これぞ事變の活歷史！毎號大評判の寫眞特輯

▲大評判の戀愛小說 愛憎の書……菊池寬
▲大評判の時代小說 魔粧佛身……吉川英治
▲大評判の軍國小說 日本の妻……竹田敏彦
▲大評判の諧謔小說 嫁取り双六……佐々木邦
▲大評判の股旅小說 駒下駄道中……原巖
▲大評判の探偵小說 双假面……横溝正史
▲大評判の武勇講談 斑鳩平次……神田越山
▲大評判の俠艶小說 浮名紅梅……川口松太郎

定價六十錢 送料五錢 全國書店にあり！

東京小石川 大日本雄辯會講談社